

## 120. 나의 산만한 신부들 & 너희들에 대한 나의 연민.

2015.08.31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저희와 함께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다시 기니피그(실험용 쥐)가 되어야 했어요!

주님께서 제 잘못들을 더 깊이 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기만함으로 주님께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저희는 그 거대한 캠핑카를 저희들의 땅에서 치우면서 그 캠핑카가 지나가는 길에 있던 정원의 바위들과 나무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젊은 자원봉사자가 정원을 함께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정원에 대한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무단점유 건물로 사용하는 이 버려진 집에 이사하였을 때 이곳은 쓰레기, 캔, 병, 바늘, 변기, 기저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큰 뒷마당에는 오래된 고물차가 있었고 거대한 미루나무와 진흙이 도처에 있었어요. 제 남편은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였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과 대치되었어요.

저는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물차를 치우고 나서 저는 산에서 가져온 바위들로 야생의 느낌을 만들어보려고 하였어요. 실제로 저희가 살던 산에서 아름다운 바위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오래된 나무들과 토착식물들도 함께 심었어요. 물은 거리로 흘러내려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건물을 돌아들어와 진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위가 늘어선 구불구불한 시냇물을 만들고 두개의 작은 아치형 다리를 그 위에 지었어요. 정원은 둥글고 자유로운 모양이었고 각이 지거나 단조롭지 않았어요. 이곳은 정말 숲속 깊은 곳, 숨겨진 정원처럼 보여지고 느껴졌어요.

이제 자원 봉사자와 돌들을 되돌려 놓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이 예술가와 결혼했다면.. 음,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고통이 될 수 있는지 알 것이에요. 까다롭고, 까다롭고, 까다로워져요. 저는 자원봉사자에게 정원 끝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시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어요. 물론 다른 22살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자원봉사자도 그렇게 하였어요. 정리가 잘되고, 각이 졌으며, 깔끔하고 개성적이지 않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그곳을 걸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중에 고쳐야지. 기다릴 수 있어.'

두시간 후에 저는 그곳을 다시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저것을 고쳐야 되! 그래, 너는 저것을 고쳐야 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음주에 하자!'

그런 후 저는 또 다시 정원에 와서 그 논쟁을 제 마음 속에서 다시 할거예요. 제가 그곳을 걸을 때마다 정원을 고치려는 유혹에 빠졌고 그것이 저에게 흰쌀밥알처럼 저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그게 어제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실 지 모르겠지만 섬유근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들을 옮기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루 이틀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논쟁하였어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그것이 너를 망칠거야!'

하지만 그 후에 저는 그곳을 다시 지나가야 했었고 혼잣말로 이야기하였어요. '자제력을 가지자. 너는 그것을 이번 주에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저를 괴롭혔고 멈추기를 거부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거의 뛰어 들고 있었고 그곳을 걸을 때마다 멋지고 구불구불한 정원을 복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약간 몽롱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저는 기도를 하러 갔고 주님과 아침의 미소를 나누면서 생각하였어요. '내가 돌 2개만 옮길 수 있다면 나는 기분이 나아지고 나머지를 내버려 두게 될 거야.' 제가 빨래한 옷들을 넣을 때 그 생각이 저를 때렸어요.

맞아요. 그 2개의 바위는 30분짜리 프로젝트이고 그것은 저를 기운이 없게 만들 것이고 월요일까지 저를 무기력하게 할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예전과 같아질 것이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신경쓰지 않고 마침내 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기도하였고 평소와 같이 주님 앞에 앉아있을때 저의 충동이 저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였을 때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는 심지어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조언해준 것이 기억났어요: 여러분이 망친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라구요. 제가 고개를 들어 영의 영역에 저의 눈을 집중할 때, 저의 달콤한 예수님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저를 끌어당겨 꼭 안아 주셨어요.

오, 감사해요 주님. 이제야 제가 정말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화가 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고 단지 저를 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백만가지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의 경우에는 저를 괴롭히는 정원이 있었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달콤한

임재를 맞보았지만 몇 분 후에 제 머릿속에서 저는 예쁜 바위들 위에 올라가 정원의 바위들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저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원에 있었어요!

오 안돼! 이것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꾸짖고 주님에게 다시 집중하였어요. 주님은 저를 안고 미소짓고 계셨어요.

제가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너를 절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클레어) 다시 저는 주님의 임재를 음미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분정도 후에 저는 제 머리속에서 정원의 예쁜 바위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다시요!

저는 다시 집중했고 주님은 여전히 미소짓고 계셨어요.

(예수님) 다시 온 것을 환영해.

(클레어) 저는 말했어요. 오 주님, 주님과 여기 머물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 마음은 끝내지못한 정원 일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나도 알아. 그들에게 이야기해.

(클레어) 오, 안돼요 주님!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야 되나요?

(예수님) 그래.. 나는 너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해.

(클레어) 저는 생각했어요. '오, 이건 주님이 아니야..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가서 성경의 약속 책(Bible Promises)을 확인하였고 '성령'의 주제를 열었어요. 흠.. 알겠어요. 확실하네요.

주님 그래서 지금 저의 약점을 공유했으니 또 다른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너가 기도를 하기 위해 자극제인 카페인이나 커피 또는 독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괴롭혀왔던 프로젝트에 빠져들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 그러니 주의해라.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여러 시간에 너희들을 깨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특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러 올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의식을 나누고 싶어.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점점 더 집중하는 달콤한 시간이야.

하지만 산만해지는 생각을 조심해라. 만약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하기 위해 그것을 써 놓고 잊어버려라.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만약 너희들이 써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방황하는 너희들의 마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의 약점을 알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너희들의 사랑으로 나를 안을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던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나의 창조물들, 특히 나의 최고의 아름다움인 나의 신부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니? 나는 너희들의 헌신에 너무 감동하여 미소 지을 수밖에 없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너희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내려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나는 정말 고마워해. 너희들의 약함으로 와서 너희들의 잘못을 밝히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거나 꾸짖을 수가 있어?

오히려 마치 아무런 결점들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너희들의 이웃의 결점을 찾는 것은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야. 이것은 너희들의 집중력 부족이나 번덕스러움 보다 훨씬 나를 아프게 해.

나의 신부들아, 나에게 더 가까워지는 너희들의 노력에서 나는 또한 너희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희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워지기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의 결점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은 결혼생활에서 정말 쉽게 하는 것들이야. 특히 악마들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둘 사이에 멀어지는 벽을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야. 아주 천천히 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너희들의 배우자 사이에 차가움을 느낄 때까지 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몇 달에 걸쳐 그 차가움은 쌓이고, 조금씩 결점들을 찾으면서 배우자를 너희들에게서 멀어지게 할 거야.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해. 나는 너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쌓아 나가기 원해. 나의 신부들아 제발. 세상에서 비난들을 충분히 하였어. 결점들을 찾고 공격하고. 나는 너희들이 희망과 격려의 등대가 되기를 원해. 조금의 세밀한 조사 없이 서로를 구축하고 서로가 긍정적이 되는지를 것을.

이것이 너희들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결점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어린이 같은 순수함으로 너희들의 결점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너희들의 이웃에 대해 부정적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스럽게 안아주게 하고 너희들의 결점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해.

이것은 진실이야: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되지 않아. 칭찬은 칭찬을 가져오고 판단은 심판을 가져오는 것은 진실이야. 이것들이 삶의 역동이야. 이것이 행복의 규칙이며 확실하게 나의 은혜를 얻는 가장 짧은 지름길이야.

나는 너희들 모두를 매우 사랑해. 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행복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로 지금 너희들을 축복해. 나의 영은 너희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 앞에서 너희들의 결점들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그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쁠 거야.

나는 항상 미소와 함께 너희들을 기다려. 매일 나에게 와서 우리가 서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하루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라. 이것은 내가 엄격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너희들의 결점을 찾는 신이라는 적의 비난을 차단할 거야.

나의 신부들아, 나의 부드러운 미소로 너희들의 기쁨을 불어넣게 해라. 언젠가 너희들은 곧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입재와 미소를 안게 될 거야.

언젠가 아주 곧.